학술단신

알라야식 이론 집중 논의

동국대 불교문화硏, 19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불교 유가행파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인문한국(HK)연구단(단장 김종욱)은 11월 19일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마음과 의식-알라야식의 이해'를 주제로 2016년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안혜 · 법칭 · 롱솜빠 · 원효 등 인도와 티베트, 한국 불교의 논사들의 알라야식 이해를 다뤘다. 주요 학자로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도르지 왕축, 마틴 델하이 교수와 프랑스 고등연구원의 빈센트 엘칭거 교수 등 해외 석학과 이수미 동국대 교수, 김성철 금강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알라야식은 인도 유가행파의 대표적 이론으로 개인 존재의 깊은 곳의 잠재의식이다. 이 개념은 인도뿐 아니라 티베트, 동아시아 불교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개념이라고 평가받는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은 11월 19일 '마음과 의식-알라야식의 이해'를 주제로 2016년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中영명연수 선사 조명한다

한국선학회, 12월 3일 추계학술대회

선교일치(禪敎一致)로 중국과 한국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줬던 중국의 영명연수(永明延壽, 904~975)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는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과 함께 12월 3일 오후 1시부터 연세대 광복관 별관에서 '영명연수-돈오 · 견성 · 무심'을 주제로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세계 불교학계에서 관련 연구의 선봉에 있는 젊은 학자들이 대거 발제를 맡는다. 웨이다오루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교수는 '성철과 연수의 선사상 동이(同異)'를, 손징송 중국 무한대학 국학원 교수는 '영명연수의 불성설(佛性說)'을, 야나키 미키야스 일본 하나조노대학 국제선학연구소 전임강사는 '영명연수의 돈오돈수'를, 박인석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는 '영명연수의 무심론'을 각각 발표한다. 신성민 기자

국내 인도 명상공동체 현황은?

조계종 불교사회硏, 11월 30일 세미나

국내 인도 명상공동체 현황을 살피는 세미나가 열린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11월 30일 템플스테이통합센터 3층 보현실에서 '국내 인도 명상공동체의 현황과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인모 현대액티브힐링 명상센터 지도자가 '과학과 종교 사이, 오쇼 명상의 길'을, 인도 비하르 요가대학에서 공부한 문영희 씨가 '스와미 쉬바난다 전통을 계승해온 한국 사띠아난다요가 아쉬람'을, 이정수 담마코리아 지도법사가 '담마코리아는 재가 수행공동체인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신성민 기자

일제시기 관촉사 엽서, '슬픈 근대'를 담다

홍은미 연구부장 '관촉사 문화유산' 세미나서 조명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한국에 산재한 문화유적에 대한 다양한 사진 엽서를 남겼다. 이들 엽서는 과거 한국 주요 사찰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하지만 이들 엽서가 식민지 지배층인 일본이 한국 문화유적들을 관광상품 · 물신화 하려는 근대적 욕망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은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원 연구부장은 11월 20일 '논산 관촉사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열린 은진미륵불 1010주년 학술대회에서 관촉사의 일제강점기 사진엽서를 분석하며 "일제에 의해 타자화돼 기록된 이미지"라고 주장했다.

홍 연구부장은 관광의 개념은 서구 유럽에서 시작됐고, 여행지 풍경이 담긴 사진엽서는 대표적 관광기념품으로 자리잡았고, 관광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음을 전제하고, 근대를 맞은 한반도에서도 시작된 관광은 일제에 의해 계획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홍 연구부장에 따르면 이런 관광은 1900년대 철도가 부분적으로 개통되고, 1910년대 승합차 이용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며 가능해졌다. 실제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매일신보〉〈동아일보〉〈자유신문〉 등에는 관촉사에 대한 광고나 기사가 실린다.

1916년 9월 23일자 〈매일신보〉에는 논산 관촉사 미륵보승회에서는 미륵대재를 거행하는데 임시열차를 운행하고, 열차 요금을 반액으로 할인해줄 것이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1921년 9월 21일 기사에서는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관촉사 참배하고 명승지를 탐방했다는 기사도 기록돼 있다. 또한 논산군과 〈매일신보〉논산지국은 관촉사 참배를 진작시키기 위해 관람회를 조직하기까지 했다는 사실도 이 시기 기사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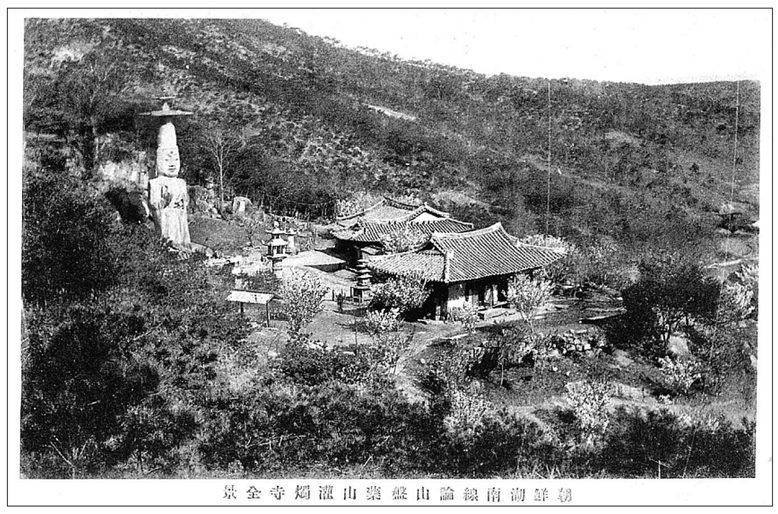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관광 본격화되며
사찰 등 유적 사진엽서 발행
지배세력의해 재현된 이미지
"관광상품 · 물신화 과정 보여"

홍 연구부장은 "식민지 조선에서 관촉사 참배와 관광은 1917년부터 고조되기 시작했고, 조선총독부와 철도국, 관광협회는 명승지유람단을 위한 편의 제공과 관광지도, 사진엽서, 스탬프 등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민지 조선에 대한 관광상품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이라며 "조선탐방의 내용을 결정짓고, 사진엽서를 제작하는 주체는 일본제국이었으며, 이 모든 것은 지배권력의 통제범위 안에 마땅히 들어가야 하는 문화산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대 관촉사 사진엽서 이미지와 식민지 조선 이미지는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 속에서 만들어진 타자화된 이미지임을 재차 강조했다.

홍 연구부장은 "관광엽서와 기념사진을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산물이라고 단순히 정의내려서는 안 된다. 관광 엽서와 사진 등이 우리 근대문화를 주도한 것을 사실이지만 전통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면서 "일제에 의해 소비되고 재생산된 이미지는 또 다른 문화권력의 밑받침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논산 관촉사의 이미지를 담은 근대 시기 엽서. 이 같은 엽서는 일제가 주도한 관광산업이 본격화되면서 만들어진 상품으로 소비됐다. 사진제공= 동북아불교미술연구원

이어 "근대 관촉사의 이미지는 사진엽서라는 시각적 소유를 통해 물신화, 상품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식민지에 대한 은유로 타자화된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규순 대한풍수연구원장의 '관촉사의 풍수적 입지 특성'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의 '논산 관촉사 석불의 시기별 존명(尊名) 인식의 변천' △김정원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의 '논산 관촉사 사적비 연구'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금강경에는 '無諍의 진리'가 담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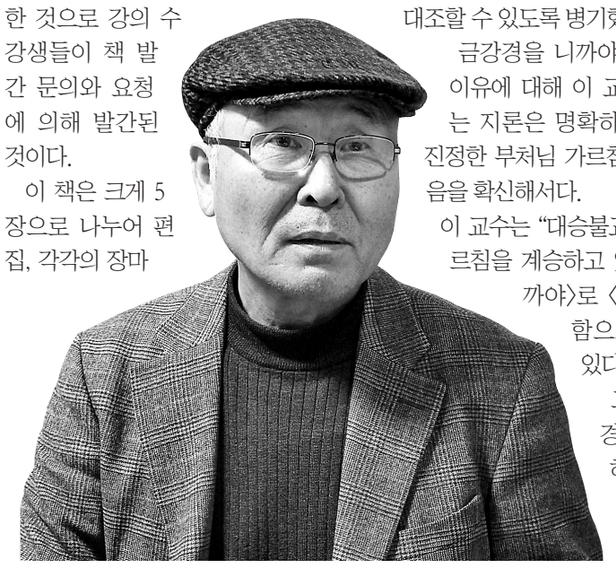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발간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

아함경과 니까야에 근거해
〈금강경〉이 쓰여졌음 밝혀
"금강경, 바르게 공부하면
고통의 근본 해결책 찾아"

초기불교 경전인 〈아함경〉과 〈니까야〉에 근거해 대승불교 경전인 〈금강경〉을 해석한 해설서가 발간됐다.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사진〉가 발간한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민족사 刊)은 초기경전 〈니까야〉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금강경〉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밝히며 해설하고 있다. 〈니까야〉를 근거로 〈금강경〉을 해석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다.

이 교수는 올해 1월, 3주에 걸쳐 서울, 광주, 구례에서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을 주제로 강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책은 강연의 내용을 보충 집필한 것으로 강의 수강생들이 책 발간 문의와 요청에 의해 발간된 것이다.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나누어 편집, 각각의 장마다 구마라집 한역본(漢譯本)에 적용되어 있는 양나라 소명 태자가 32분으로 분장한 체제를 반영했다. 또한 금강경 산스크리트어본과 구마라집 한역본을 대조할 수 있도록 병기했다.

금강경을 니까야로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교수가 가지고 있는 지론은 명확하다. 대승불교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신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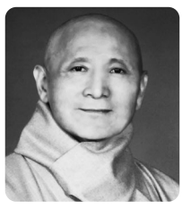
이 교수는 "대승불교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는 이유는 〈니까야〉로 〈금강경〉을 해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금강경〉을 바르게 공부하고 경전에 제시된 바대로 실천하면 우리 사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했다. 〈금강경〉의 핵심은 갈등과 논쟁을 해소하는 '무쟁(無諍)'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강경〉은 개인적인 열반을 강조하는 경전이 아니라 중생 구제의 큰 서원을 세우고 부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서원하며 깨달음을 향해서 함께 가는 보살행에 대해 설하는 경전이라고 말한다. 〈니까야〉로 〈금강경〉을 읽으면 부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보살행,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극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금강경〉의 취지는 수보리의 질문에서 나타난다"며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촉하셨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부촉을 받아들여 보살의 길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까'는 것이 〈금강경〉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본 지면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美 · 醜 의 兩 邊 에 서



美(미 : 아름다움)를 싫어할 사람은??? 해와 달, 하늘과 땅, 산하대지, 물과 불, 밝음과 어둠, 남녀노소, 춘하추동 피고 지는 꽃과 나무들의 변화가 아름답고 선남선녀,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 신명을 바친 의인들, 진리탐구에 몸 받친 성인들, 각 나라별 인종과 문화와 언어의 차이점, 물속에 사는 물고기, 땅위의 금수들 등등 자신들의 영역에서 살아 숨 쉬는 이 세상 모두가 아름답다. 더불어 가정과 학교, 이웃과 직장, 사회와 나라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가장 쉽고도 평범한 진리를 간직한다면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는 아름다움 더하리라!

※ 心地에 올바른 꽃을 피워 小欲知足에 身心이 청정하니 불보살(天使)이 찾아와 아름다운 선근을 심어 자신과 나라를 복되게 함과 함께 불국토를 이루어 천상에 오름을!

醜(추)함을 좋아할 사람은??? 술, 담배, 마약, 도박 등등 나쁜 줄 알면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생, 도적질, 탐욕, 악담, 비방, 이간질, 분노, 어리석음 등등. 추함을 알면서도 삿됨에 빠져 악업을 계속 창조(국정발목잡기, 진실왜곡하기, 불의를 정당화하기, 반대만을 위한 반대, 불법집회, 비난/모함, 선전선동, 입만 열면 거짓말 등등)하면서 살아간다. 부 · 귀를 누리는 자 빈자와 약자를 괴롭히는 갑질 ? 갈취하는 행위와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잘못만을 들추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자들의 추함이 사회를 병들게 함도 모자라 자신들의 영달만을 위해 유유상종하는 자들과 내부 불만세력들이 가세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마저 위태롭게 하려함이 더욱 추함이리라.

※ 心地에 삿된 꽃을 피우니 마왕이 찾아와 시기, 질투, 분노와 탐욕의 불길에서 자신과 나라마저 해악을 끼침과 함께 지옥의 불길까지 끌고 가고통 받게 됨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王(대통령)! 부귀공명을 성취한 공덕의 자리, 온갖 복락과 함께 인사권을 지고 존경과 함께 복종을 강요할 수 있기에 모두가 원하고 바란다. 그러나 명예를 얻은 자 부를, 부를 누리는 자 명예를 놓아야 함을 잊고 부 · 귀 모두를 탐하다 진흙탕에서 힘들어한다. 사랑과 자비와 올바름이 결여되면 삿된 마왕의 노예가 되어 탐욕의 불길에서 고통 받음을.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가신들, 책임지지 않으려는 추함이 더욱 비난받게 됨을 모르고 있음인가?

선친(고 박정희대통령)의 선근공덕에 힘입어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내외적으로 초기에 정치를 잘하여 부국강병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으나 내치에 실정이 들어나면서 믿었던 가신들의 불의와 배신감에서 참담한 고뇌에 허덕임은 아집과 교만, 독단에다 남의 말 듣지 않는 불통의 오명은 자신의 허물이리라. 삿된 외도의 속임수에 자신과 측근들의 불의까지 보지 못하게 되어 국민들의 신임마저 상실함은 물론, 자신의 실정에 선친의 선정까지 추락시키는 불효를 범하게 되었음을 통탄하리라!!! 만약 대통령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초발심으로 돌아가 모두를 내려놓고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함을 행동으로 보여준 다음 퇴임 후 옥고를 치루겠다는 약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안위와 민생을 뒤로한 체 오직 부귀만을 탐하는 분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분들, 남북정상회담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NLL포기발원과 북한에 건너간 비자금, 대통령하야를 위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대법관들의 보복성 퇴출, 실정을 엄폐하기위해 청와대 컴퓨터파일 안보문건 유출 등, 대통령죽음으로 땅속에 묻힌 비화)의 실정.....

북한의 기습도발에 따른 연평해전에서 수많은 아군사상자와 함께 군함이 침몰한 와중에 군을 독려하고 국민을 위로해야할 대통령의 눈 · 귀를 가리고 타국의 축구장으로 달려가게 하여 군과 국민에게 참담한 고통을 안긴 사건, 특검에서 밝혀진 수, 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덮어버린 사건, 등의 연장선상에 계셨던 분들의 허물들을 국민모두 잊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위현장에 앞장서서 현 정부를 비난하며 돌을 던질 정직하고 양심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있다고 말한다면 자신들에게 허물은 없는지 뒤돌아보시길?

※ 자신들의 心地에 정직함이 없다면 올바름과 믿음은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지?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과 여야지도자들을 함께 만나 화해와 단결을 도모하여야 할 시기에 각종파지도자들 역시 수수방관하고 있음도 모자라 일부 지도자들께서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 갈등을 부추김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 사찰, 성당과 그 외 여러 종파의 지도자들께서 국민의 화합과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나라가 안정된 평화 속에서만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합니다. 반세기(66년)전 권력욕에 집착한 김일성집단이 외세를 등에 업고 조국산하를 피로물들인 동족상잔의 참혹상을 일으킨 전범들 때문에 전선에서 조국을 지키다 적의 총탄포화에 산화한 수많은 영령들이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며 통곡하는 소리가, 地天을 울리고 있음을 각종파지도자들께선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금번 집회장에서 수십만 군중이 보여준 평화로운 시위는 진정 아름다움의 극치요. 성숙한 시민의식의 참모습에 내 조국 이 땅에 희망과 광명이 있음이요, 자신들의 영달만을 위해 삿된 정치를 일삼는 지도자들의 퇴출과 함께 국민과 나라를 위해 신명을 받칠 참신한 지도자들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산승 가슴이 저밀정도로 감탄, 감사드립니다. 이젠 학교와 직장과 사회, 국회, 언론 등 모두 각자 맡은바 일터로 돌아가 본분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은 특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니 잘잘못을 가려 처벌하면 될 것을 선량한 국민들을 앞세워 대통령 끌어내리려는 삿된 행위만은 멈추어 주시길 산승 기도합니다.

6.25전쟁은 당시 남한 내(정치인들과 무뢰배들의 난동)에 북한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이 많다고 생각한 김일성의 오판이 빚어낸 참극임을! 국내 분열의 현 상황을 虎視耽耽 노리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에게 도발의 빌미와, 내 조국 반세기에 이룩한 아름다운 산하를 파괴하려는 내부 불만세력들의 폭거 등 어떠한 도발도 막아야 합니다. 해 가고 달 가듯이 100년의 세월도 紅爐點雪이라, 부귀공명 또한 이와 같음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아무 것도 가져갈 순 없지만 지은 업장만은 따라감이라 삿됨 버리시고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나아가 아들, 딸 후손들이 추함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행복의 문안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지도자들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기도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음사에서 송 몽 합장 (010-2124-1171)